

도교육청, 5급 승진심사 운영계획 설명회

대상자 62명 중 18명 선발예정... 10월 26~27일 역량평가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오전 8층 회의실에서 5급 승진심사 대상자(6급)를 참석시킨 가운데 5급 승진심사 운영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행정 45명, 시설 10명, 공업 7명 등 승진심사 대상자 62명이 참석했으며,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18명(교육행정 15명, 시설 2명, 공업 1명)을 선발해 내년 1월 이후 승진임용할 예정이다. 5급 승진심사 운영 계획에 따르면 승진후보

자 명부 순위 20%와 역량평가 80%를 반영해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역량평가는 관리자로서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서 작성(40%)을 통해 업무계획과 문제인식·해결 능력을 살피고, 심층면접(집단토론·개별면접 40%)을 통해 국민중심적 사고와 의사소통, 조정통합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가능한 일반적인 주제 또는 사회 일반 분야에서 제시된 기본 자료를 보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나아가 조직 상황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심층면접은 집단토론면접(60분)과 개별면접(20분 내외) 등 2단계로 진행된다. 집단토론면접은 3~4명이 무작위로 조를 이뤄 공통의 해결과제에 대한 토론을 거친 뒤 공동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 개별면접은 인성, 역량뿐만 아니라 6급 재직 기간 중 업무추진 실적

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역량평가까지 모두 마치면 역량평가단장인 부교육감이 승진심사를 위한 최종 평가 결과를 작성하게 되는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점수와 역량평가 점수를 합산해 순위자를 결정한다. 이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자료로 제공돼 승진의결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평가 대상자의 6급 재직기간 중 업무추진 실적, 청렴도, 구성원과의 협력 정도 등을 검증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온라인 공개 검증을 실시한다. /장은성 기자



지난 15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제7회 전북이중언어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모두 함께 꿈꾸는 세상 만들고 싶어요”

도교육청, 전북이중언어말하기대회 성료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지만, 저의 부모님은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모두가 함께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제7회 전북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서 초등부 대상은 군산서해초등학교 5학년 코나친 예프게니 학생의 소망이다. 전북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 및 이중언어(부모 모국어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한 언어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매년 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9월 15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전북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중 지역 예

선을 통과한 학생 17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교육혁신과 내성성 과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경쟁보다는 이종언어 말하기를 통해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며 즐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대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에는 이중언어동아리 팀의 공연이 있었는데 고산초등학교 ‘탐블링’ 팀은 체조 시범을 보이며 동작을 베트남어로 설명하여 참석한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동아리팀에 참여한 학생은 “체조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오는 22일은 중등부 전북 이중언어말하기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대학생 관광아이디어 공모전에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대상 수상

‘응답하라’ 시간여행 테마 새로운 여행 스타일 제안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학생팀이 ‘응답하라 5,000년’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여행스타일을 제안하며 대학생 관광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최근 군산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관광산업학회 주관 2018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대학생 관광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염승훈, 최인서, 양희정, 정아현 학생 팀(이하 응답하라팀)이 대상을 거머쥐었다.

전주대 응답하라팀은 ‘응답하라 5,000년’이라는 주제로 전주·군산·부안·고창의 시간 여행코스를 발굴하고 ‘응답하라 버스 및 회수권’을 제안하여 관람객의 이동 편의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외국인, 연인, 가족의 타겟층을 세분화하여 여행코스를 제시하고, 관광환경 개선 및 인력양

성, 홍보마케팅 부분에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응답하라팀 염승훈 학생(전주대 관광경영학과 3학년)은 “평소에 전북 지역 관광 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우리 전북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교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권주영, 유상혁, 장기은, 문희정 학생팀도 ‘천년의 비상 전북형 DMO’라는 주제로 관광분야의 공공·민간분야를 포괄하는 기구 신설을 제안하여 장려상을 받았다.

공모전에 참가한 전주대 학생들은 “수상의 여부를 떠나서 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실무에 적용시켜 보고 그 결과를 피드백 받는 귀중한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더 많은 실무지식과 경험을 쌓고 싶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관광산업학회 주관 2018 추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학생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리공고 엘리트 육상선수 육성 ‘구슬땀’

이리공업고등학교(교장 김기욱)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치러진 2018 목포 국제 육상 투척 경기대회 중 해머던지기, 원반던지기 1위, 포환던지기 2위 등을 수상했다.

엘리트 육상 선수의 육성을 위해 지도교사인 양재량 선생님은 가장 무더웠던 올해 여름을 학생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양재량 선생님은 학생들의 인내와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섰으며 육상에 있어서 불모지와 다름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육상의 명맥을 이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회 유치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리공업고등학교는 육상선수의 육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스포츠를 항상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결과 9월 15일~16일 동안 치러진 전라북도 교육감배 스포츠 리그에서 탁구 1위 배드민턴 2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김기욱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키우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지역발전연구소-한국법과학협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원광대학교 부설 지역발전연구소(소장 정현욱)와 한국법과학협동조합(이사장 김일평)이 민·학 협력을 위한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8일 원광대 송산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 민·학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추진된 가운데 협약을 기반으로 양 기관은 익산시 관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법과학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고통 받

고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역할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응호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원광대 지역발전연구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의 인재 풀과 한국법과학협동조합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 및 안전을 위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호원대 학생상담센터, 교원 대상 상담역량 강화

비폭력 대화법 교육 실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학생상담센터에서는 교원 및 신입교원 등을 대상으로 19일 오전 4시 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2018학년도 교원 대상 비폭력 대화법 교육’을 실시하여 교원의 상담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교원대상 상담역량 강화교육은 교원들이 상담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담과 관련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방법을 숙지하고 구조화된 상담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본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이자 학생상담센터 연구 교

수인 강희양 교수의 ‘비폭력대화법(NVC)을 활용한 학생 상담’과 ‘심리검사의 활용’을 주제로 2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날 참여한 교원들은 비폭력대화법(NVC)에 대한 개념 이해와 실습을 통해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방법과 학생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검사 이해 및 결과 활용법에 대한 스킬을 높여 학생상담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편, 호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학생 관리 전면에 있는 교원의 상담역량 강화 및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